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4 주차 (롬 1:18~25)
(2017년 1월 22일 - 2017년 1월 28일)
(제 5 권 4 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URE DRY** 제 5 권-제 4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7 년 1 월 22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주일)

오늘의 본문 (롬1:18~19)

¹⁸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Αποκαλύπτεται γὰρ ὀργὴ θεοῦ)

하늘로부터(ἀπὸ οὐρανοῦ)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 위로 (ἐπὶ πᾶσαν ἀσεβειαν καὶ ἀδικίαν ἀνθρώπων)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 (τῶν τὴν ἀλήθειαν ἐν ἀδικίᾳ κατεχόντων,)

¹⁹ 왜냐하면(διότι)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τὸ γνωστὸν τοῦ θεοῦ φανερόν ἐστιν ἐν αὐτοῖς·)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ὁ θεὸς γὰρ αὐτοῖς ἐφανέρωσεν.)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선언했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의와는 정반대인 진노에 대해 언급한다. 바로 앞 구절인 17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하나님의 의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의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무심해지기 쉽다. 그 진노가 자기와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사실 17 절과 18 절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동시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7 절과 18 절은 서로 완전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동시에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근원지는 서로 다르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향하고 있는 대상도 다르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와 불경건 위에 부여진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는 오직 그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복음 안에 머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들은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과연 불의는 무엇이고 불경건은 무엇일까? 모세 율법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는 의와 거룩이다. 헬라어로 의는 ‘디카이오스’ (δικαιοσ)고, 거룩은 ‘히기오스’ (ἁγιος)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신다. 그 구원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율법이다. 이집트에서 힘겨운 노예의 삶을 살고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구속하여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들이 죽은 뒤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오순절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 가치가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의로워야 한다. 단 한치의 불의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거룩해야 한다. 어떠한 흠도 없는 존재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율법의 가치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단 한번도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내 그 땅의 풍습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의 송아지 신을 약속의 땅으로 가져왔고, 거기에 더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던 바알까

지 섬겼다. 그들은 온갖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 신들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그러다가도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만 하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불러 댔다. 이런 상황은 역사 내내 반복됐고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각각 앗수르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 당하고 만다. 우상을 섬긴 유대 사람들은 70년간의 가혹한 포로생활을 겪어야 했고 약속한 기한이 끝나고서야 다시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때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 뼈속 깊이 절절히 체험했다. 포로의 삶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 온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의 가치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포로기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처절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BC 164년 마카비 혁명으로 일시적인 독립의 기쁨을 맛본 후부터는 율법의 가치가 유대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 율법에서 두가지 중요한 가치인 의와 거룩을 발견하고 현실의 삶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구현하고자 했다. 이런 하시딤의 무리 중에서 특별히 행위를 통한 의로움을 강조한 무리들을 바리새파라고 하고 거룩함을 강조한 무리들을 에센파라고 불렀다. 게다가 극단적 에센파는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기까지 했다. 이들 바리새인들과 에센파는 모두 내세를 강조하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다. 반면에 현세의 삶을 강조한 일련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을 사두개파라고 불렀다. 이들은 아주 소수의 종교 지도자 층으로, 이들의 믿음은 거룩함이나 경건함보다는 현세의 축복과 번영에 초점을 두었다. 당연히 부활이나 내세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분위기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양산해 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다른 이들에게 입증해야 했다. 죄를 짓지 않으려 부단히 애를 썼으며 부정한 것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디카이오스’와 ‘하기오스’라는 작은 인형을 조각해서 집안에 모셔 두기까지 했다. 다시 말해 의로움과 거룩함이 또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셈이다. 복음서를 보면 이들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은 것이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이었다. 예수님이 세리, 창기 들과 어울리는 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정죄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부정하다고 비판했다. 그들이 얼마나 의와 거룩에 목숨 걸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들이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불경건 위로 나타난다는 말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혹시라도 잘못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봐 두려운가?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자다. 그런 생각은 정확히 복음과 대치된다. 우리의 삶이 원치 않는 쪽으로 흐르거나 고난이 찾아 올 때 그 원인을 여전히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찾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물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그들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불의와 불경건은 우리의 행위나 존재에 판단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오직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복음의 능력을 뒤흔들 수는 없다. 복음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안심하라.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 충분히 의롭고 충분히 거룩하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그 진노에서 벗어난 자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자들(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1:18~19)

¹⁸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Αποκαλύπτεται γὰρ ὀργὴ θεοῦ)

하늘로부터(ἀπὸ οὐρανοῦ)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 위로 (ἐπὶ πᾶσαν ἀσέβειαν καὶ ἀδικίαν ἀνθρώπων)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 (τῶν τὴν ἀλήθειαν ἐν ἀδικίᾳ κατεχόντων,)

¹⁹ 왜냐하면(διότι)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τὸ γνωστὸν τοῦ θεοῦ φανερόν ἐστιν ἐν αὐτοῖς)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ὁ θεὸς γὰρ αὐτοῖς ἐφανέρωσεν.)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 위로 나타난다고 했다. 사도 바울은 불의와 불경건한 사람들을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 혹시 뻔한 걸 못 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에는 반전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새겨 들어야 한다. 기존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구현된 것이 진리다. 따라서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심, 그것만이 진리인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진리를 막고 있는 상태를 불의라고 했다. 여기서 ‘막고 있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카테코’(κατέχω)다. 이 단어는 뭔가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눌러서 막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의롭고 거룩해 질 수 있다는 진리를 억지로 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다. 바로 그런 행위가 불의한 것이고 그런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런 자들이며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걸까?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마23:2-3).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가르침은 올바른 것이며 그 가르침 대로 행해야 한다. 그들은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말로만 가르칠 뿐 정작 자신들이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신랄한 어조로 비판하셨다. 13절 이후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질책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거칠고 신랄하며 매몰차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짓은 진리를 막아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의하고 불경건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린 채 자신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그들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부지런히 다니다가 마침내 하나를 얻으면 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눈 먼 인도자였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분을 섬기는 장소를 중하게 생각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탐욕이 넘쳐 흘렀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 놓은 회칠한 무덤 같았다.

진리를 막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들의 자기 과시욕이다.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게 불의다. 자신이 얼마나 남들에게 의롭고 경건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온갖 애씀, 그것이 불경건의 모습이다. 기독교는 인간의 애씀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다. 그렇기에 진리를 막는 주체는 외부의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셈이다.

복음은 우리의 애씀이 끝났음을 선언한다. 만약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되기 위해 여전히 뭔가 더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1:30).

이 선언이 진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고, 의로움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우리는 그저 예수 안에 있을 뿐이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애써 부인하려는 사람들이다. 불의와 불경건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하는 모습이 오히려 뻔뻔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맞는 말이다. 자신의 노력은 하나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일은 정말 엄청난 일이다. 그 때문에 양심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의에 조금이라고 자신들의 행위를 더하려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에 뭔가를 보태고 싶어도 무엇 하나도 더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을 자신이 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것만 온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리를 억누르고 있던 비진리를 걷어내고 순순히 진리를 받아들일게 된다. 불의와 불경건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바울이 말하는 불의와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런 적이 없었나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1:18~19)

¹⁸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Αποκαλύπτεται γὰρ ὀργὴ θεοῦ)

하늘로부터(ἀπὸ οὐρανοῦ)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 위로 (ἐπὶ πάντας ἀσεβείαν καὶ ἀδικίαν ἀνθρώπων)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 (τῶν τὴν ἀλήθειαν ἐν ἀδικίᾳ κατεχόντων,)

¹⁹ 왜냐하면(διότι)

게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τὸ γνωστὸν τοῦ θεοῦ φανερόν ἐστιν ἐν αὐτοῖς;)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ὁ θεὸς γὰρ αὐτοῖς ἐφανέρωσεν.)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세상을 살다보면 아무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손가락질 당하거나 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다윗왕의 음모로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죽은 우리야가 그렇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를 강제로 범했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야를 죽였다. 우리야가 잘못된 게 있다면 자신의 주군인 다윗에게 충성한 것 밖에 없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아내를 빼앗긴 것과 억울한 죽음이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실제 그의 삶은 하자 많고, 이기적이며, 우유부단하고, 심지어 잔혹한 면까지 있었다. 그에 비해 우리야는 별로 하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우리야는 죽고 다윗은 장수했으니 인간의 눈엔 삶이 부조리하게만 보인다.

이처럼 인간의 눈에 비친 세상사들은 이해하기 힘든 게 참 많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벌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온갖 종류의 벌을 내리신다고 믿은 것이다. 누구는 재산을 빼앗고, 누구는 건강을 빼앗기도 하며, 심지어 어떤 이에겐 장애를 주기도 한다고 믿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천적 맹인인 한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요9:2). 제자들이 깊은 성찰 끝에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다. 그들은 장애를 보자마자 자동적으로 죄를 떠올린 것이다. 그런데 그 장애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 당연히 그 죄의 근원을 부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 셈이다. 이처럼 인간들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인과응보 사상은 모든 고통을 죄의 결과로 해석하게 만든다.

물론 인과응보라는 말은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세에 그만큼의 보응을 받는다는 불교적 개념이다. 하지만 불교든 기독교든 상관없이 이런 생각은 인간들이 지닌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구절을 읽는 순간 자동적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 바울은 인간들에게 ‘게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 안에 있다고 했다. 그 당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지식이 그들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막고 있었기에 그 자체로 불의하고 불경건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삶으로 불의와 불경건을 판단할 수 없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장애인이든 정상

인이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예외없이 불의와 불경건의 판단 기준은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불경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기준이라 말하고 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지식은 분명히 모든 인간들에게 계시되었고, 그 지식은 이미 인간들 안에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또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시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피조 세계, 즉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그 지식을 계시하셨다고 한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리다. 위대한 창조주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창조주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곧바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에 대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고 말씀하셨다. 결국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말이다.

불의와 불경건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셨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었다. 결국 의와 불의, 경건과 불경건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이다.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⁵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중략)...⁷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⁸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⁹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중략)...¹¹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중략)...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¹⁴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1:3-1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고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기독교는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밀은 깨달은 사람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만 그 정체성이 설명되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는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신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가?(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1:20~21)

²⁰ [왜냐하면]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τὰ γὰρ ἀόρατα αὐτοῦ)
세상의 창조로부터 (ἀπὸ κτίσεως κόσμου)
피조물들에게 (τοῖς ποιήμασιν)
이해된 것들 (νοούμενα)
분명히 인식된다 (καθορᾶται)
그리고 그의 신성과 능력이 (ἢ τε ἀίδιος αὐτοῦ δύναμις καὶ θεϊότης)
그결과 그들이 핑계할수 없습니다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οὺς ἀναπολογίτους)

²¹ 왜냐하면(διότι)
하나님을 알았지만 (γνόντες τὸν θεόν)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다(οὐχ ὡς θεὸν ἐδόξασαν ἢ ἠμχαρίστησαν.)
그들의 생각에 의해 그들이 가치없게 되었습니다 (ἀλλ' ἐμπατώθησαν ἐν τοῖς διαλογισμοῖς αὐτῶν)
미련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καὶ ἐσκοτίσθη ἡ ἀσύνετος αὐτῶν καρδία.)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명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외라고 생각한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외일 수 없다. 하나님의 의는 정의롭다. 그래서 공의라 부른다. 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며 거기에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분명히 인식되어진다고 했다. 여기서 피조물들이란 세상 만물들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인식되어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카도라오 (καθοράω) 다. ‘카도라오’란 어떤 존재를 단지 감지하고 인식한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식했을 뿐이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아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이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에 걸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나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열 번에 걸친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켰고,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목도했고 체험했다. 특히,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홍해를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춤을 추며 축제를 벌였고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세상에 그 어떤 민족이 이처럼 극적인 구원을 체험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지 3개월 채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시내산 아래 광야에 장막을 쳤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렀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던 그 날 시내산은 우레와 번개와 뽐뽐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에 산이 진동했다. 진중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를 향해 그렇게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

자 순간 쥐죽은 듯한 고요가 시내산과 광야를 뒤덮었을 것이다.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은 아론을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출32:1).

이 말을 들은 아론은 즉시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에 있던 금귀고리를 빼내 왔고, 아론은 그것을 녹여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들의 눈에 번쩍이는 금송아지가 보였다. 금송아지를 본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출32:4).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두어 달 전 출애굽 하면서 놀라운 재앙들과 기적을 체험했다. 그들 눈 앞에 펼쳐진 그 모든 재앙들과 기적들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영역이고 신의 능력임을 알았다. 그들은 ‘카도라오’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집트의 신 ‘금송아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파리 때로 이집트를 덮고 강을 피로 물들인 것도, 메뚜기 때로 모든 곡식을 먹어치우게 하고 개구리들이 득실대게 한 것도 모두 금송아지 형상을 가진 신이 했다고 믿었다. 물론 유월절 어린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해 자기들을 살린 것도,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인 그 재앙도 금송아지 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 금송아지가 홍해를 갈라 자기들을 인도했고, 앞으로도 그들을 인도할 신이었다.

우리 역시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때도 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한다. 문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오히려 믿는 것은 별개라는 점이다.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카도라오’ 하긴 하지만 그것을 정확히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을 모토로 삼았다. 그들은 일일이 삶의 수칙을 정하고 그대로 지켜내려 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시자였고, 냉정한 심판자였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잘먹고 잘입고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다. 같은 하나님도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해한다. 문제는 인간들 각자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믿는다는 점이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금송아지나 바알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숭배하는 그런 우를 범했을까? 그렇기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단은 공연히 생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사람은 만드시 다른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게 마련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 이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나요?

믿음없는 자들의 특징(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1:20~21)

²⁰ [왜냐하면]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τὰ γὰρ ἀόρατα αὐτοῦ)
세상의 창조로부터 (ἀπὸ κτίσεως κόσμου)
피조물들에게 (τοῖς ποιήμασιν)
이해된 것들 (νοούμενα)
분명히 인식된다 (καθοραῖται,
그리고 그의 신성과 능력이 (ἢ τε ἀάδιος αὐτοῦ δύναμις καὶ θεϊότης)
그결과 그들이 핑계할수 없습니다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οὺς ἀνοπολογήτους.)

²¹ 왜냐하면(διότι)
하나님을 알았지만 (γνόντες τὸν θεὸν)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다(οὐχ ὡς θεὸν ἐδόξασαν ἢ ἠνυχαρίστησαν,
그들의 생각에 의해 그들이 가치없게 되었습니다(ἀλλ' ἐματαιώθησαν ἐν τοῖς διαλογισμοῖς αὐτῶν)
미련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καὶ ἐσκοτίσθη ἡ ἀσύνητος αὐτῶν καρδία.)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한다. 창조를 믿지 않는 대신 진화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영화롭게 할 하나님도, 감사해야 할 창조주도 없다. 우리는 사도바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신론자들을 머리에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런 무신론자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로마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글을 쓸 이유가 없지 않는가?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았지만’으로 시작된다. 우선 이 글을 읽을 때 가장 뜨끔해야 할 사람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도 자신하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그들 모두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다. 그렇기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주 모여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도 한다. 당연히 교회 내에서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이라 여긴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적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열심으로 영화롭게 되기도 하고 영광이 훼손되기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화롭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에 티나 흠결을 입힐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말은 영화로운 하나님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시고 그 앞에 엎드릴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의를 내세운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하고, 때론 분노하며,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까지 한다.

둘째, 스스로 옳다고 믿는 생각들로 인해 그들 자신이 가치없는 존재가 된다. 인간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축적한 지식, 삶의 철학, 세계관만이 옳다고 여기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해한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실체이며 그에 반하는 모든 주장들은 허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생각들을 정면으로 부인한다. ‘그들의 생각에 의해 그들이 가치없는 존재가 된다!’ 이말은 그들이 허상을 붙들고 허상을 주장함으로써 거꾸로 실체를 부인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말이다. 허상을 붙잡고 있다는 말은 무가치한 것들에 매달려 있는 걸 뜻한다. 결국 그들 스스로가 그것들이 무가치하다는걸 입증하고 있는셈이다. 인간들이 쌓아온 지식, 삶의 경험, 심지어 신앙의 자산등 그들이 애지중지해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마주하게 되면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의 없음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진리를 애써 부인하고 자신들이 집착해온 비진리 뒤에 꼭꼭 숨는다.

셋째, 미련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들의 마음은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말은 세상적인 지식이 모자란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은 철학이나 문학 등 수많은 세상 지식에 통달할 수 있다. 바울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각자의 지식을 뽐내는 경연장 같은 곳이었다. 물론 당시 아테네도 철학자들로 득실거렸지만, 로마도 그에 못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신학적 지식으로 무장했고, 어떤 이들은 스토아 철학으로 무장했으며, 어떤 이들은 정치적 지식으로 무장했다. 그런데 바울은 인간이 세상 지식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면 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음의 어두워짐이란 허망한 세상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바울은 당대의 누구보다 신학적, 철학적 지식에 정통했다. 그러나 그는 한번도 그 지식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세상의 지식도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가치를 발하게 되는 법이다.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사욕을 따르는데 있다. 인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의와 거룩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자신들의 사욕을 따르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고 가벼이 여기는 것이 죄의 근본이다. 세상의 모든 악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대적자를 사탄이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특별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 한다. 그리고 그런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나요?

우상 숭배자들(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1:22~23)

스스로 지혜를 주장하지만 (φρόσκοντες εἶναι σοφοί)
그들은 어리석게 되었다 (ἐμωράνθησαν)
그들은 불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습니다(καὶ ἠλλάξαν τὴν δόξαν τοῦ ἀφθάρτου θεοῦ)
썩어지는 형상으로 (ἐν ὁμοιώματι εἰκόνος φθαρτοῦ)
사람과 새들과 짐승들과 파충류 들의
(ἀνθρώπου καὶ πετεινῶν καὶ τετραπόδων καὶ ἑρπετῶν.)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대부분의 인간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독점했고, 스스로 선민이라 여겼다. 그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있다고 믿었다. 정작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는 자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지혜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어리석었던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⁴³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⁴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니”(갈 1:13-14).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다. 스테반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떳떳했다.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뜻이 땅에 구현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스스로 의로운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부했던 바울이었는데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임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당시 가장 철학적이라고 하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전통적으로 헬라는 철학이 융성했고, 그 철학이 그들의 세계관을 결정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다른 민족들을 야만인이라 여겼다. 헬라인들은 신도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이해하려 했다. 그들은 신을 만들어 냈고, 고안해 낸 신들에게 캐릭터와 이름을 부여하여 그들을 섬겼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존재들이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처음 방문했을 때 바울은 철학에 능한 헬라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철학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정도 많았다. 그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신의 이미지를 입히고 그것들을 섬겼다. 심지어는 이름조차 붙이지 못할 정도로 이미지화 하기 힘든 대상까지 신으로 섬겼는데 그 신의 이름은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신’이었다(행17:23 참조).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은 이 세상 지식이 모자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어휘력이 떨어지거나 교양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지식, 철학, 종교 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수많은 학문들이 세상의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왔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²⁰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²¹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²²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²³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²⁴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전 1:20-24).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삼가며, 심지어 사람들까지 가려 가며 만나면서도 어찌서 정작 하나님의 진리에는 이르지 못했을까? 헬라인들은 세상의 철학으로 무장하여 누구보다 더 현명하다고 자부했으면서도 어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이르지 못했을까?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장 미련하고 끔찍한 방법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했다. 조금의 상식이라도 있거나, 조금의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오히려 자기가 가장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주 사소한 일로 교회가 사분오열되기도 한다. 마치 자기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나 되는 양 타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정죄하고 비판한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피조물을 우상화시키듯이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 시킨다. 창조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창조주로 여기고 높이는 것이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우상숭배라는 말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단어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낸 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숭배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다.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지도 모르니 말이다. 하나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내 뜻대로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 나를 건강하게 하고 명예롭게 해 주는 분?... 어떤 분이 떠오르든 바로 그분이 당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우상일 수도 있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행여나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입니까? 당신이 지혜로운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 주었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1:24~25)

24 그러므로 (Διὸ)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 주었다 (παρέδωκεν αὐτοὺς ὁ θεὸς)
그들 마음의 열정가운데(ἐν ταῖς ἐπιθυμίαις τῶν καρδιῶν αὐτῶν)
그들 스스로 그들의 몸을 더러움과 불명예스럽게 하도록
(εἰς ἀκαθαρσίαν τοῦ ἀπιμάρτυσθαι τὰ σώματα αὐτῶν ἐν αὐτοῖς·)

25 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었다.

(οἵτινες μετέλλαξαν τὴν ἀλήθειαν τοῦ θεοῦ ἐν τῷ ψεῦδει)

그리고 피조물을 창조주를대신하여 예배하고 섬겼다

(καὶ ἐσεβάσθησαν καὶ ἐλάτρευσαν τῇ κτίσει παρὰ τὸν κτίσαντα.)

그(창조주)는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분이다. 아멘. (ὅς ἐστιν εὐλογητὸς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ἀμήν.)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 대해 말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 주었다”고 말한다.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께서...내어 버려 두사”로 번역하고 있다. 내어 버려둔다는 말은 인간들이 스스로 그런 삶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뜻이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동사는 ‘파라디도미’(παροδίδομι)다. 이 단어는 단지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넘겨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찾는다면 가롯 유다의 배반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일련의 과정일 게다. 먼저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기로 하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요 13:21).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요 18:35).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요 19:16).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요 19:30).

가롯 유다는 은 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겼고, 그들은 예수님을 심문한 후 다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예수님을 넘겨 받은 빌라도는 갖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서 죄를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신의 휘하에 있는 군사들에게 넘겨 주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셨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넘겨주셨다. 겉으로 보기에 인간들이 예수

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예수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넘겨줬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파라디도미는 단순한 허용의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넘겨주는 행위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스스로의 욕망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몸을 더럽고 불명예스럽게 하도록 파라디도미 하셨다면 그것은 단지 허용한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과 뜻으로 살아가도록 프로그램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은 자기와는 상관없거나 적어도 자신은 예외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신은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았지 더럽고 불명예스러운 삶은 살지 않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들의 도덕적 잣대로 의로움과 경건함을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외적으로 보이는 현상만으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보다 월등히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하던 바리새인보다 사실상 공동체에서 손가락질 받은 불쌍한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셨다. 의로움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의와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인간들과의 관계를 끊으셨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²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³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발함이라”(사 59:1-3).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 열정은 인간을 여러 모습으로 빚어 간다. 어떤 이는 그야말로 미래의 영화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기도 한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칭송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인간의 삶을 기준으로 의와 거룩을 평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 입었느냐 아니냐로 판단하신다. 예외는 없다. 그렇기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한 종교 생활에 치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겉으로 보기에 불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그들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서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